

C-5. Root Coverage시 EDTA와 Tetracycline Hydrochloride로 치근면 처리한 증례

주연수

서울보훈병원

Background

치은퇴축은 임상적으로 심미적인 문제점과 치근우식증, 치아과민증, 치태침착을 유발할 수 있다. 치은퇴축 회복을 위하여 1956년 Grupe & Warren이 Lateral sliding flap을 발판으로, 1985년 Langer가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를, 1987년 Nelson이 Subpedicle connective tissue graft등 많은 술식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술식에서 plaque와 세균 등에 오염된 치근면의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scaling, root planing 등의 기계적인 치근면 처리와 약제 등에 의한 화학적인 치근면 처리가 행해졌다. 화학적 치근면 처리로 구연산과 tetracycline hydrochloride 등을 사용하여 치근면의 탈회를 통해 치근면에 콜라겐 섬유를 노출시키고 결합조직의 부착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구연산(pH1)과 tetracycline hydrochloride(pH2)은 강산성 용액으로 치주관막과 치주지지 조직 괴사, 치근 흡수, 골유착등의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pH7)는 중성으로 치근면 탈회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임상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root coverage시 EDTA와 Tetracycline Hydrochloride로 치근면 처리한 증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Material & Methods

치은퇴축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6명의 환자에서 Langer & Langer방법을 이용한 subepithelial connective tissue graft를 시행하였다. 술식중 치근면 치치에 있어서 3명은 Tetracycline Hydrochloride(Tc-HCl,종근당,50mg/ml,3분)로 나머지 3명은 EDTA(PrefGelTM,Straumann,Sweden,24%EDTA,2분)를 적용하였다.

수용부 각각의 치아에서 치료 전후의 치주낭 깊이, 치은퇴축양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임상적 결과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Results & Conclusions

Root coverage 술식에서 치근면 처리로 Tetracycline Hydrochloride와 EDTA를 사용한 2가지 경우에서 모두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유의할만한 차이점은 없었다. 이에 Root coverage 술식중 중성의 EDTA로 치근면 처리시 좋은 치근 피개의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따른 좀 더 장기적인 임상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